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한옥마을에 마당창극 전용 공연장 건립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음 4월 15일) 제27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지난 24일 저녁 8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일환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성장기구 의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환경위기 극복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성장기구 의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전북도청 제공〉

'생태문명 시대 선도' 추진 의지

송하진 도지사, 'P4G 서울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 토론 참석

새만금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추진 방향 등 설명 공감 이끌어내

송하진 도지사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녹색미래 주간(5월 24~29일) 첫날 특별세션에 참석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의장,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날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국내외 도시간 경험 공유를 통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으며, 송하진 지사는 2번째 주제에 토론자로 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과정의 해외 참고사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전북도가 아젠다로 삼은 '생태문명 시대 선도' 추진 의지 등을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와 더불어 환경문제, 자치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별세션에 앞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 퍼포먼스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해 대면-비대면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문'에 서명했다.

퍼포먼스는 참여자가 서명한 테블릿을 중앙 모형제작물에 부착하면, 동시에 환경위기 시계가 9:47—9:49로 움직이게 됨으로써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와 의지를 담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모두가 뜻을 모아 실천해야 할 필수적 사안이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월 30일~31일)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P4G 회원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대표 및 학계 등이 참석해 개최된다. /유호상 기자

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순조

접종률 전체 도민의 10.76%로 전국 평균 이상

60세 이상 사전 예약률 17개 시·도 중 최고치

20대 등 젊은층 겨냥 유튜브 제작 등 홍보 '눈길'

전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체 도민의 10.7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단장 최훈 행정부지사, 이하 추진단)은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19만4,000명으로, 전북도 전체 인구수의 10.76%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10만1,000명으로 5.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1차 접종률 7.5%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또, 지난 6일부터 연령별 순차적으로 시작된 60세 이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은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 예약하지 못한 대상자는 온라인(http:/ /ncvr.kdca.go.kr),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이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콜센터 전화예약은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오전 9시~오후 6시, 지자체별 탄력적)하다.

추진단은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들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반드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도는 27일부터 실시되는 60세이상 74세 어르신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콜센터 운영, 재난문자 발송 등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를 추진했다.

또한, 읍면동이·통장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접종 동의를 받았고, 마을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20대 등 젊은층들을 겨냥한 도 공식 유튜브(두근두근 로복이의 첫 소개팅! -feat. 백신접종-)를 제작해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제적인 홍보로 주목받고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예약률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 광고, 소식지(얼쑤 전북) 제작 등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그간 예방접종 동의서 징구, 사전 예약지원, 재난지원금 현장업무 등으로 대민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이 매우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자에 대해 조기 접종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수급,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 관리, 이상반응 대응체계 구축 등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며 백신의 안전성과 예방적인 효과를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주거복지 정책 실행력 담보… 전북도, 주택건축과 조직 명칭 변경

7월부터 본격 가동

전북도가 정부 정책 기조인 생태건축 및 맞춤형 주거지원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주택건축과 조직(팀) 명칭을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014년 이후 첫 전면 개편으로 생태도시로 변모와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및 주거복지 정책 등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담은 전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주택건축과 조직 명칭변경 핵심은 정책 개발 기능 강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와 주거복지 확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주택·건축 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며 급변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경관팀을 '건축정책팀'으로 개편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공동주택지원팀을 '주거복지팀'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건축을 육성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건축문화팀을 '생태건축팀'으로 개편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디자인건축팀의 경우 건축을 삭제하고, 도시의 모든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공디자인팀'으로 변경한다.

전북도는 7월부터 개편 조직을 본격 가동하며, 사전에 사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는 강화하고,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건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 공간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건축을 통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21 익산 청년에게,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신청기간 : 2021.5.31.월. ~ 6.11.금.(10일)

익산시 익산청년센터 청숲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라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신청하세요!!
익산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익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본인 명의에 한함)로 지급하는 정책수당

▶ 신청대상
- 연령·주소·근로·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연령] 신청일 기준 만18세~만39세 (2003년~1981년생)
[주소]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
[근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포함)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청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 중 주35시간 이상 근무자
(육아기근로시간·육아휴직자 별도서류제출)
[급여] 지급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월평균 급여 세전 270만원 미만

▶ 신청방법 (우편,방문 주소지 동일)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 및 방문(분산)접수
- 익산시 중앙로 12-279 청년센터 청숲 우)54601
[우편접수 안내]
- 우체국 소인 2021년 6월 11분까지 접수
- 우편봉투 전면에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지원신청서」 표기
[방문접수 안내]
- 출생년도 끝자리가 표에 기재 된 요일에 분산하여 본인 방문접수
(09시~18시 /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불가)
예) 1 9 8 4 년생 / 목요일 방문접수 가능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1년 5월 17일 ~ 6월 11일 (4주)
- www.iksan.go.kr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 확인
- www.youthforest.iksan.go.kr 익산청년센터 청숲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및 필수사항 동의서
② 신청서류 본인체크리스트
③ 참여 신청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⑤ 주민등록 초본
(최근3개월주소이력, 병역사항 필수 기재)
⑥ 가족관계증명 2부
(본인기준 1부 발급 / 부모 중 1인 기준 1부 발급)
⑦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포함)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제출제외
※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함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⑩ 근로계약서 (사본)
⑪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⑫ 급여 내역서 (최근 5개월)
⑬ 통장 급여 입금 내역서 (최근 5개월)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청년은 상기 서류 중 12번~13번을 육아 해당 기간 직전 5개월분으로 제출, 육아휴직자는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세요
제출서류, 지원조건, 신청·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청숲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지원내용
- 선정 후 지원기간 동안 동일사업장 근로 및 익산시 내 주소유지 필수
* 단, 퇴사후 3개월 이내 익산시 내 다른 중소기업 재 취업시 1회에 한하여 인정 (별도서류 제출)
[금액] 매월 30만원
[기간] 최대 3년 (1인당 최대 1,080만원)
[방법] 매월 다이로움 카드 충전 지급 (본인명의에 한함)

▶ 대상자선정기준
[1순위] 유사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순
[2순위] 월 평균 급여액이 낮은 순
[3순위] 재직 기간이 긴 순

▶ 지원근거
익산시 청년희망도시구축을 위한 조례

▶ 문의전화 1577-0072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센터 청숲
063-859-7358, 7382, 7384